

10. 쇼토엔(松濤園)

쇼토엔(松濤園)은 1970년대 초기에 문을 열었고, 지금은 고인인 창립자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은 분재 초보자나, 관광객도 방문하기 편한 분위기입니다. 내부와 거리 쪽까지 화분, 장식용 수석, 지판(地板)이라고 불리는 목재판을 포함해 저렴한 가격의 분재 관련 용품이 진열되어 있으며, 모두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게 뒤편에는 분재원이 펼쳐져 있는데, 원주가 그 기술을 세련되게 연마하기 위해 폭넓은 종류의 분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분재는 구매하기 좋은 가격으로 방문객 구입용으로는 튼튼한 진백(일본 진백)이 좋다고 합니다.